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15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Praise & Worship Praise Team
Call to Worship Psalm 72:1,4,19 Presider
Prayer Presider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38.....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2:1-12 Preside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The Seeking Heart Finds Christ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Song Lord I Offer My Life..... Together
*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s Blessing Congregation
* Hymn 122(122)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The Seeking Heart Finds Christ

Matthew 2:1-12

Summary of the sermon

The famous magi, the traditionally known and entitled wise men came a great distance to find the King, our Lord Jesus Christ. Little or none is known about them, but they were able to meet the Lord when the religious people of God could not. This makes them very special and invites us to find out why they were so special.

First, they were seekers. Their hearts, and minds were open. They knew God is working, moving, and they were waiting for Him to be revealed. A great lesson for those people who although they want to experience God and know God more, they are unfortunately seeking everything else but God, and their hearts are taken by so many other things.

Second, they were movers and shakers. They sought the King so much that anything was possible for them, even moving away from country, comforts, family, being at the peril of death and disaster. They let their faith be the guide to lead their actions.

Third, they were worshippers. They did not bow down to Herod or anyone else, but only to the King, Jesus Christ. Even though finding a peasant boy, their hearts knew He was the Lord. They responded as true worshippers. They bowed in homage, they offered what was of great worth and meaningful, and they followed the direction of the Lord.

The religious people who thought they knew God did none of the above. They were unable to find the Lord and unable to be found by the Lord. But those who seek with their hearts the revealing of God, and are willing to be led by their belief in the hope and promises of God, will always find God, and be found by God, allowing Him to lead the rest of their life.

Announcement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Our Discipleship I & II are on break until the new year.
-Praise God for a blessed day serving the Gu Ryong Maeul area. We were able to serve 25 people, each person receiving prayer, a blanket, a Bible, soup, a glass lock and lock container, a 60,000 won E-Mart gift certificate, a hair dye kit, and a snack. We were also able to give a local Pastor a blessed Love Offering for her continued ministry and five more Bibles for her Church.
-Please sign up to bring food for our Christmas Feast, Sunday Dec. 30th, after Worship in room 101!!!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Ⅲ,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Ⅱ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Ⅱ층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602 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경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다형 최인애 허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현

선 교 사 강아름 주하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하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미성(잉글라데시), 이재욱-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윤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터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영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얀마)

제22권 제52호

제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2년 12월 23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새 포도주와 새 부대” (New Wine and New Wineskins)

■ **눅 5:33-39**

이 세상에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과 변할 수밖에 없는, 아니 꼭 변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 혹은 한 민족 가운데 언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코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변해 버리고, 변해야 할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눅 5:37-39)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새 부대, 그리고 낡은 부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2012년 묵은해를 보내며, 이제 2013년도 새 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레슨들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 포도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새 포도주”에 비유한 것은 얼마나 적절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죽부대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묵은 것이 되면, 새 포도주의 발효하는 그 운동력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력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살아 있어 거대한 운동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팽창의 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벌써 2000년이나 지난 것인데, 이제는 묵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래 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언제나 새 포도주입니다. (눅 5: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묵은 포도주처럼 오래 된 말씀이지만, 동시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항상 새 포도주처럼 거대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어,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와 사회,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포도주를 복음이 아닌 다른 포도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도주, 그러나 항상 역사되는 새 포도주인 것을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묵은 포도주처럼 너무도 맛있고 가치 있는 테고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늘 새 포도주처럼 감동과 도전과 은혜와 변화를 주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새 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라면 그 복음을 담는 틀과 형식을 담아내는 것이 “포도주 부대”입니다. “묵은 포도주인 동시에 새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이 한 번 역사되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끊임없이 발효하는 새 포도주와 같아서 수시로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가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변해야 하는 것이 그 복음을 담는 형식과 틀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은 초대교회의 것과 다르고, 중세시대의 것과도 다르고, 120년 전 한국 초대교회의 것과도 다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마땅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정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교회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는 부대, 즉 형식과 틀은 항상 상황에 맞게 변화함으로 복음의 새 포도주의 부름을 잘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다음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인생이 변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서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시스템이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묵은 포도주이면서 동시에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 말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눅 5: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옛 것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복음, 그러나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맺는 말

하나님의 영광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담는 부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 위원부, 조동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2013년 1월 첫째 주일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어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를 위해 힘은 시간들을 참내면 슬개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예배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나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